

코로나 19, 온라인 수업에 장애 학생과 소수계 가정 더 애먹는다

radioseoul1650.com/local/코로나-19-온라인-수업에-어려움을-겪는-장애-학생과-언/

By 수빈 안

5월 8,
2020

‘코로나19’ 확진자수·관련정보

자세히 보기



<AP>

코로나 19 확산의 여파로 모든 학교들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후 장애가 있는 학생 혹은 언어 장벽에 부딪힌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커뮤니티 컨설팅 회사 케이시 스트래티지스의 주최로 소수계 미디어들을 위해 8일 열린 코로나 19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화상 회의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된 후 장애인 학생을 둔 가정 혹은 언어적 장벽에 부딪힌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가 제공할 수 있는 도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 19 비상사태 선포 후 현재 모든 학교들이 캠퍼스를 폐쇄하고 수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태지만, 교육의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 언어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어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경우 특수교육의 일환으로 개인 교육 프로그램인 IEP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학생에 따라 교육 환경 혹은 방식을 달리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후 특수 교육 IEP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은 데다 설사 제공한다 해도 원격 수업으로는 테라피가 효과를 거두기 힘든 실정입니다.

비영리 교육 단체 질 론랜드 대표입니다.

(질 론랜드 컷)

소수계 가정의 경우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로컬 교육구에서 효과적인 홈스쿨링을 위한 안내 공문을 보내더라도 영어에 능숙지 못한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 진흥협회는 밝혔습니다.

(컷)

코로나 19으로 인해 급변한 교육 환경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이 배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하며 커뮤니티의 권익 옹호단체에 도움을 청해서라도 배움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수빈 기자

Categories: [2. 로컬/캘리포니아](#)

Tagged as: [covid](#), [main](#)